

“농구로 지역 넘어 우정·화합 다지는 축제가 되다”

고창·정읍·부안 청소년 3:3 농구대회
중등 '고창중준'·고등 정읍스카이 우승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고창지구협의회(회장 김진곤)가 최근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고창·정읍·부안군 청소년이 참여하는 '제20회 청소년 3:3 농구대회'를 열었다.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선도활동의 일환으로 치러진 이번 경기는 3개 시·군에서 지역별로 중등부 2팀, 고등부 4팀 등 총 18개 팀의 중고등학교 80여명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경기결과 중등부는 '고창중준' 팀이 우승을, '고창중준' 팀이 준우승을, '부안 원사원길' 팀과 '정읍 더위사냥' 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고등부는 '정읍 스카이' 팀이 우승, '부안 공작' 팀이 준우승, '고창 슈타' 팀과 '고창 슈타' 팀이 공동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사랑위원회 고창지구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청소년간 유대감과 애호심을 높이고, 청소년 건전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창·정읍·부안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구는 특히 팀워크가 중요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고창지구협의회가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고창·정읍·부안군 청소년이 참여하는 '제20회 청소년 3:3 농구대회'를 개최했다.

한 종목으로 선수들의 협력이 돋보이는 역동적인 경기이고, 이는 친목을 다지고 우정을 키우기에 적합하다"며 "3개 시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뜻

깊은 기회가 마련된 만큼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석 기자

완주군 고산고등학교, 글로벌직업교육 독일 기업 탐방

고산고등학교 1학년 6명이 독일의 직업학교와 기업체를 견학했다. 올해 공립 대안고로 전환한 고산고는 완주군의 지원을 받아 졸업 후 독일의 직업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이원교육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원교육제도는 직업훈련학교와 기업에서의 기술교육을 병행하는 제도로, 3년 6개월 정도의 과정을 이수하면 직업학교 졸업과 기능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 정규직으로 취할 수 있는 통로이다.

고산고의 글로벌 직업교육은 4년째 완주군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고산고 재학생을 중심으로 주중 방과후와 토요일에 독일어 수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독일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3학년 학생이 없어, 대안학교 과정으로 입학한 1학년 학생들 중 희망자를 모집해 수업을 진행했으며, 이들 중 일부가 독일의 직업학교와 기업체를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주요 기관은 스위스 바젤의 직업학교(Lehrwerkstatt fuer Mechanik)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 보봉(Vauban), 울름에 소재한 세계에서 가장 큰 소방차 생산공장 마기누스(Magirus)를 찾아 직업교육의 현장을 체험하고, 뮌헨에서는 건물, 가구 및 수공업(Heim+Handwerk) 박람회와 식품, 유제품 및 주류(Food & Life) 박람회를 견학했다. 고산고등학교는 앞으로도 해외 취업의 기회를 계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9일 (목) (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회장 김옥길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용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8-6674	남원지사 602-389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산지사 010-2233-4791	순창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서산시 010-2233-4791	팔복지사 253-6944	남원지사 602-3896	정읍지사 538-3787
요지지사 010-9845-9355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9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대 변재원 대학원생, 대림 대학원 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는 변재원 대학원생(화학공학부 박사과정·지도교수 한지훈)이 대림 대학원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변 씨는 한국화학공학회에 '푸르푸람의 화학적 촉매전환을 통한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코올 생산 공정 개발 및 경제성 평가'라는 논문을 발표해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이 연구를 통해 대표적 재생가능 자원인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유도되는 푸르푸람로부터 다양도로 이용 가능한 고부가 화학제품인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코올을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기술경제성을 제시했다.

변 씨는 "교수님의 지도와 연구실 선배들의 도움 아래 즐겁게 연구하다 보니 이런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방송인 노민 홍보대사 위촉

남원소방서는 3일 방송인 노민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위촉식은 주민주인과 접근성이 높은 방송인을 소방홍보대사로 위촉, 안전의식 향상과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앞으로 노민 소방홍보대사는 방송활동 중 소방정책과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남원소방서 직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PTSD) 치유를 위한 강연과 상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성탄절 맞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성탄절 맞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다음달 10일까지 환하게 불을 밝힐 예정이다. 순창군은 최근 순창읍 독대마당에 설치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순창군기독교연합회(회장 송주인 목사, 호계교회)가 주최하고 순창군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황숙주 순창군수, 신정아 순창군의회 부의장, 송준신 순창군의원 등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과 기독교연합회,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된 점등식은 내빈 소개에 이어 축하 인사와 점등, 기념 예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아기 예수의 가르침과 사랑의 손길을 되새기며, 군민의 화합과 안녕, 남북한의 평화 공존과 통일을 기원했다.

순창군기독교연합회는 독대마당에 높이 7m, 지름 3m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해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군민들에게 나눔과 사랑, 희망의 불빛으로 세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대마당 주변에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도 설치해 찾는 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군, 대형 성탄트리 점등행사 가져

무주군이 오색천관하게 빛났다. 군청 분수대에 높이 9m(둘레 24m)의 트리 조형물을 설치한 군은 3일 점등행사를 갖고 '이웃과 함께 하는 연말연시'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기독교연합회(회장 최만규 안성교회 목사)와 무주군청 선교회가 공동 주관해 열린 것으로, 점등식에 앞서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을 비롯한 관내 교회 성도 등 주민들이 참석해 성탄을 축하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 성탄트리는 지난 99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해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잊지 못할 볼거리, 주민들에게는 훈훈함을 전하는 겨울철 명물이 됐으며 이날 점등된 트리는 내년 1월 말까지 무주군 전역을 환하게 밝힐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